황주홍 강진군수 인사청탁자 공개

4건 영문 이니셜로

인사청탁자는 그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던 황주홍 강진군수가 청탁자를 밝혔다.

황 군수는 21일 평소 군정에 대한 소신이나 비공식 일정 등을 써왔던 자신의 군정일기(郡政日記)에서 "인사 원칙 천명 이후 4건의 인사청탁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그는 "전화로 이뤄진 청탁은 K씨에 의한 S공무원, C씨에 의한 A간부, H씨에 의한 K간부, L씨에 의한 Y공무원이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청탁 대상 공무원의 실명 공개가 원칙이지만 이번의 경우 청탁자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자른데다 근절방침 다음날 이뤄진 것으로 해당 공무원이 억울한 측면 등을 고려, 이번 만큼 영문 이니셜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들 공무원은 이미 인사에서 손해를 봤거나 후속 인사에서 손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깨끗한 인사에 대한 내 의지를 시험하려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황 군수가 인사청탁자의 영어 이름 머리글자만을 공개했지만 최근 단행된 간부급 인사가 사실상 10여명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추론이 가능하다.

황 군수는 지난 14일 직원조회에서 인사청탁 공무원은 반드시 공개하고 승진 명부 서열에서 2단계 하향 조치,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연원영 前 자산관리公 사장 현대차 금품수수 혐의 체포

현대차그룹 비자금 용처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1일 현대차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연원영 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김유성 전 대한생명 감사와 이정훈 현 캠코 자금부장도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현대차 부채탕감 비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연 전 사장 등 3명을 오늘 오전 8시쯤 체포해 조사 중이며 이들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1~2002년 아주금속㈜ 등 현대차 계열사의 부채를 탕감하는 과정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씨와 김씨는 재정경제부 출신으로 알려져 현대차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체포된 재경부 출신 인사는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포함해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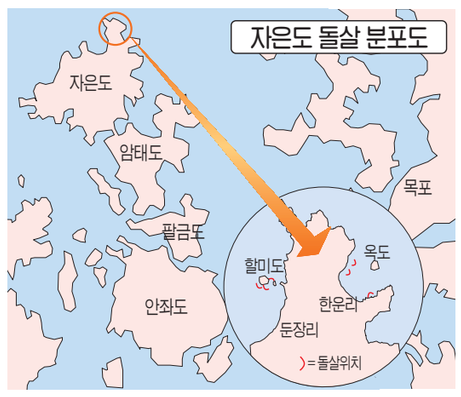
검찰은 연씨와 김씨를 상대로 현대차 부채탕감 비리에 개입한 과정을 정밀 조사하는 한편 현대차측이 캠코 외에 금융감독원 등에도 금품로비를 벌였을 것이란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돌살' 원형, 신안에서 찾았다

〈돌그물 이용 원시어법〉

자은도 한운리·둔장리 등에 6~7개 보존

주민들 "20여년 전까지도 물고기 잡았죠"



원시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전통 어법인 돌그물(돌살 또는 독살)이 거의 원형에 가깝게 보존된 채 신안군 자은도(慈恩島)에서 발견됐다.

지난 19일 낮 12시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바닷가. 썰물이 진행되면서 사람 머리 두 배 정도 크기인 돌들의 행렬이 10m 정도 이어진다. 사람 무릎 높이로 겹겹이 쌓여 브이(V)자 형태로 줄지어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돌살'이다. 한 가운데 돌의 행렬이 끊긴 50㎝ 정도의 틈새로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한 바닷물이 완만하게 고개를 넘어 나간다.

반대편에도 돌살의 흔적이 50m 길이로 이어지고 있다. 처음 드러났던 돌살보다 뚜렷하진 않았지만 돌의 위치와 크기 등을 고려했을 때 돌살의 흔적이 분명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발목 높이로 낮아진 것이 안타깝다.

자은도에는 이 곳 외에도 둔장리 할미도 인근 등 6~7개의 돌살 원형이 보존돼 있다. 돌살은 단순하게 돌을 쌓아두고 썰물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원시어법의 전형이다. 20년 전까지 한운리 돌살에서 물고기를 잡아 올렸다는 최성길(66)씨는 "아버지가 50년 전에 이 돌살을 이웃 사람에게서 사들여 30년 정도 고기를 잡았다"며 "생선이 귀해 '몬치(숭어 새끼) 한 그릇이면 하루 일과 바꾼다'고 하던 시절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돌살은) 논 한 마지기하고도 안 바꾼다'는 말이 있었던 것으로 미뤄 볼 때 논 한 마지기 보다는 비싼 가격에 거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돌살로 잡아들였던 생선은 몬치, 새우, 껄떠구(농어 새끼) 등 다양하다. 하루 두 차례 물때에 맞춰 돌살에 나가 생선을 걷어올렸고 틈틈이 썰물에 무너진 곳을 보수하기도 했다. 당시만 해도 자은도 사람들에게 돌살은 배나 그물, 작살 등 문명의 이기 없이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신의 선물'이었다.

하지만 고기잡는 법이 발달하고, 냉장기술은 물론 교통까지 좋아지면서 돌살은 잊혀져갔다.

최근 '돌살 - 신이 내린 황금그물'(들녘 펴냄)을 써 국내외 돌살을 집대성한 민속학자 주강현 박사는 "자은도의 돌살은 '살아있는 화석'이자 신화시대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황금그물'"이라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썰물 때면 나타나는 '돌살'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옥도 인근 돌살. 주민 최성길(66·오른쪽)씨와 성치민(40)씨는 "20년 전까지만해도 이곳에서 고기를 잡았다"고 말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해삼 불법채취 2명 검거

여수해양경찰은 21일 심야에 잠수 장비를 이용, 여수 앞 바다에서 2천600여만원 상당의 해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박모(40·여수시 국동)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광주 극장가 7월부터 이통사 카드 할인 안돼

극장협 "전면중단"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카드를 제시하면 영화 관람료에서 최대 2천원을 할인받는 혜택이 다음 달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극장협회(회장 이창무)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SK, KTF, LGT 등 이동통신 3사와 맺은 영화관 할인 서비스의 연간 계약이 이달 말 끝난다"며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 않을 경우 다음달 1일부터 할인 혜택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극장협회(회장 오권수)도 "서울시 극장협회와 같은 입장"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협상이 결렬되면 광주에서도 이통3사 카드를 내보여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통사 카드를 이용해 할인받을 수 있는 영화 관람료는 2천원 안팎으로, 이통사가 50~60% , 극장측이 40~50%정도를 부담해왔다.

하지만 극장협회는 경영난을 이유로 ▲이통사 요금할인제도를 원하는 극장과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할 것 ▲할인 금액을 1천원으로 낮추는 등 할인율을 자사 능력에 맞출 것 ▲극장 측에 할인요금을 부담시키지 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영화관이 늘어나고 있어 할인율을 줄인다고 해도 할인 금액을 전액 부담하기는 어렵다"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별 극장과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의 경우 영화관람객의 40%가 이통사 카드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기우뚱 아파트' 주민들 "이주대책 세워라" 회견

기울임 현상을 보이고 있는 광주 서구 화정동 J아파트 주민 250여명은 21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재건축 또는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며 시위를 벌였다.

J건설측은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지났으므로 이주대책을 마련하거나 시세 매입을 해줄 의무는 없다"면서도 "지반 강화 등 보수·보강작업은 해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J아파트는 지난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물이 27.8cm가량 기울려 서둘러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는 D급 판정을 받았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만취 승려, 20대 여성 성추행·주먹질

쌍나팔

○…술에 만취한 승려가 편의점에서 20대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주먹까지 휘두르다 경찰서행.

○…광주 서부경찰은 21일 새벽4시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S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김모(여·22)씨 등 20대 여성 2명에게 접근, "얼굴이 이쁘다"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다 이를 따지는 김씨에게 주먹까지 휘두른 혐의(강제추행 등)로 곡성군 모 사찰 승려인 임모(49)씨를 불구속 입건.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카와 술을 마시고 누나 집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그랬다"며 뒤늦게 선처를 호소.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